



미 연준,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시행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9월 21일 연준은 이틀에 걸친 FOMC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단기국채를 매도하고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.
 - 연준은 2012년 6월까지 4,000억 달러 규모로 3년 이하 만기의 단기국채를 매도하는 대신 6~30년 만기의 장기국채를 매입할 계획이며, 매입금액은 6~8년 만기와 8~10년 만기 국채에 각각 32%, 10~20년 만기 국채에 4%, 20~30년 만기 국채에 29%가 배정될 전망이다.
 - 연준은 경기성장 속도의 둔화 속에 고용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지출 증가 속도도 매우 느리다고 현재의 경기상황을 평가하고,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포함하여 경제전망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강조함.
 - 또한, 연준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도래하는 모기지 채권 자금을 새로운 모기지 채권 매입에 재투자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밝힘.

- 연준의 새로운 부양책이 발표되자 장기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 가운데, 일부 전문가들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.
 - 연준의 발표 직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.93%에서 1.87%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.20%에서 3.01%로 하락했으며,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기대했던 주식 시장은 2%대의 하락세를 나타냄.
 -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현재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, 시중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함.
 - 한편, 2011년 8월 연준이 2013년까지 단기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세 명의 연준위원들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시행에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짐.

(New York Times 등, 9/21)